

IT산업 2010년도 3분기 동향

I. IT산업 수출입 현황	3
II. 반도체 산업 동향	5
1. 실적	5
2. 전망 및 주요이슈	7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9
1. 실적	9
2. 전망 및 주요이슈	10
IV. 휴대폰 산업 동향	12
1. 실적	12
2. 전망 및 주요이슈	14

작성 : 책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안상술 (3779-6670)
ssahn@koreaexim.go.kr

< 요약 >

□ 2010년 3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21.8% 증가한 405.6억 달러

- 종전 최대인 2분기 384억 달러보다 21.6억 달러 증가
- 주력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호조로 월간 130억 달러 대 수출 4개월 연속 실현
- 3분기 IT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0% 증가한 194.6억 달러 기록

□ 3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61.5% 증가한 142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월별로도 3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 D램·낸드플래시 가격 큰 폭 하락, 4분기까지 추가하락 가능성 높음
 - 4분기에도 선진국 PC 수요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3분기 내내 떨어졌던 D램 가격 하락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
-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금년대비 5.1% 성장한 3,174억 달러 전망
 - 2010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시장 위축세는 2011년 1분기까지 이어진 뒤 하반기 이후에나 시장이 성장해, 반도체 시장에서 자주 보였던 '전약후강' 패턴이 2011년에도 적용될 전망

□ 3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92.6억 달러

- 유럽 재정 위기와 TV, PC용 패널의 재고 확대로 패널 단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 유지
- 4분기까지 패널 단가 하락은 지속되고 2011년 1분기부터 수급 개선 전망

□ 3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1.3% 감소한 58.3억 달러

- 국내 업체의 높은 일반 휴대폰 비중 때문에 휴대폰 수출 단가는 하락하였으나, 최근 스마트폰 수출 확대로 개선 추세
- 스마트폰 수출은 8월부터 일반 휴대폰 수출액을 2개월 연속 넘어섰고, 1~9월 까지 스마트폰 수출(32.7억 달러)은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수출액(20.6억 달러)의 약 1.6배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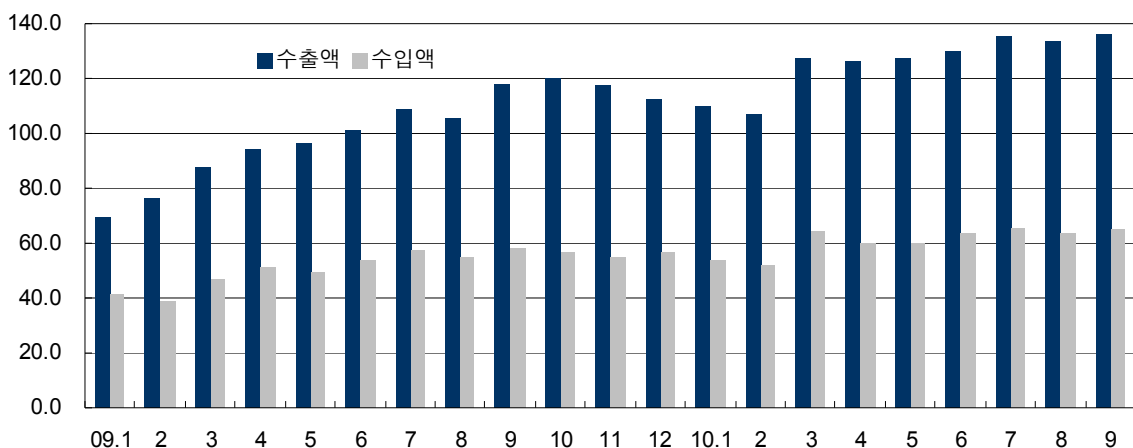
I. IT산업 수출입 현황

□ 3분기 IT 수출, 전년동기 대비 21.8% 증가한 405.6억 달러

- 2010년 3분기 IT 수출은 종전 최대인 지난 2분기 384억 달러보다 21.6억 달러 많은 405.6억 달러 기록
 - 월별로도 9월 수출 실적은 136억 달러로 종전 최대인 지난 7월의 135.6억 달러를 넘어섬.
- 주력 IT 수출 품목인 반도체, 패널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130억 달러대 수출
 - 반도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규 제품과 하반기 기업용 PC 교체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
 - 디스플레이 패널은 중국, EU 수출 확대로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세 지속
 - 반면 휴대폰은 수출 단가 하락과 주력 스마트폰 출시 지연으로 부진
- 3분기 IT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0% 증가한 194.6억 달러 기록
 -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반도체, 패널, 접속부품 등 전자부품과 태블릿PC, 넷북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입 증가

IT산업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IT산업 분기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연간	2009년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수출	전산업	3,635	△13.9	744.2	△25.2	903.6	△21.1	947.8	△17.6	1,040	11.7	1010.9	35.8	1202.7	33.1
	IT산업	1,209.5	△7.8	233.3	△30.1	292.6	△16.2	332.9	△6.9	350.3	29.5	344.2	47.5	384.0	31.2
수입	전산업	3,231	△25.8	714	△32.7	740	△35.6	848	△31.0	929	1.4	981.3	37.4	1058.6	43.1
	IT산업	620	△15.6	127.1	△33.2	153.7	△21.4	170.7	△13.3	168.6	10.7	170.3	34.0	183.8	19.6
수지	전산업	404		30		164		99		111		29.6		144.2	
	IT산업	589.3		106.6		138.8		162.2		181.7		173.9		200.2	

자료: 지식경제부

- 향후 IT 수출은 중국, 미국, EU 등 주요 IT 교역국의 경제 둔화 우려와 반도체, 패널의 글로벌 재고 확대로 수출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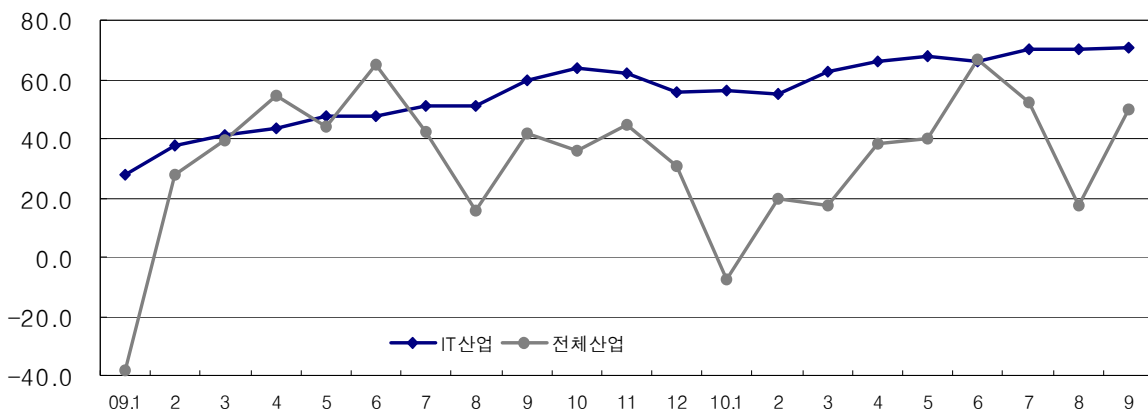
- 주력 수출 품목의 수직계열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할 전망

□ 3분기 IT산업 무역 흑자 전년동기 대비 30.0% 상승한 210억 달러

- 7월 이후 월 무역흑자가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 3분기 IT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30.0%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 1분기 63.1%, 2분기 44.2%에 비해서는 둔화되는 추세
-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을 시작한 IT 수출액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도 1월 59.5%에서 9월 14.9%로 증가폭이 계속 감소

IT산업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II. 반도체 산업 동향

1. 실적

□ 3분기 세계 D램 반도체 매출, 전년동기 대비 76% 상승한 107억 달러

- 시장조사기관 iSupply에 의하면 3분기 D램 반도체 매출 규모는 107억 2,1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6% 성장. 2분기의 107억 8,100만 달러 보다는 0.6% 하락
- D램 익스체인지 발표에서도 3분기 D램 반도체 매출액은 108억 달러. 물량 기준으로는 2분기보다 15% 증가했지만, 단가 하락 영향으로 매출액은 2분기(104억 달러) 대비 3.4% 성장에 그침.
- D램 생산량은 늘어나는 반면 PC 판매량 부진한 탓에 D램 가격 하락이 3분기 내내 지속
 - DDR3 2G의 3분기 평균 판매가는 40달러로 2분기 46달러에서 13% 하락. DDR3 1G eTT는 전분기 대비 18% 하락한 2.27달러, DDR2 1G eTT는 16% 까지 하락
-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D램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넘어서고, 2위인 하이닉스가 20%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세계 D램 시장의 60%를 석권
 -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한발 앞서 40나노급과 30나노급 공정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DDR3 등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결과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3Q10		2Q10		3Q09		전분기 대비 증감율(QoQ)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삼성전자	4,364	40.7%	3,819	35.4%	2,155	35.4%	14.27%
하이닉스	2,246	20.9%	2,314	21.5%	1,317	21.6%	-2.94%
Elpida	1,731	16.1%	1,913	17.7%	1,025	16.8%	-9.51%
Micron	1,125	10.5%	1,432	13.3%	771	12.7%	-21.44%
Nanya	439	4.1%	473	4.4%	331	5.4%	-7.19%
Powerchip	292	2.7%	260	2.4%	115	1.9%	12.31%
ProMos	187	1.7%	178	1.7%	74	1.2%	5.06%
Winbond	146	1.4%	141	1.3%	129	2.1%	3.55%
기타	191	1.8%	251	2.3%	172	2.8%	-23.90%
총합	10,721	-	10,781	-	6,090	-	

자료: iSupply, 2010년 11월

□ 3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61.5% 증가한 142억 달러 기록

- 3분기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61.5% 증가한 142억 달러 수출 기록. 월별로도 3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 D램(54.1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107.3% 증가)은 업체 간 출하 경쟁 심화와 재고 확대로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쟁국 대비 국내 업체의 기술 우위와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로 수출 증가세 지속.
- 낸드플래시 역시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수요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한 7.1억불 수출.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반도체		메모리		D램		낸드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억달러	%
'09년 1월	15.0	△46.8	7.2	△48.8	4.4	△36.7	1.0	△65.4
2월	15.4	△40.6	7.9	△42.3	4.4	△38.4	1.1	△60.2
3월	18.1	△38.4	8.7	△45.2	5.0	△41.1	1.3	△42.5
1분기	48.5	△41.8	23.8	△45.4	13.8	△38.4	3.4	△56.4
4월	21.1	△26.2	9.8	△37.6	5.3	△37.4	1.4	△37.6
5월	24.0	△22.1	11.5	△32.8	6.3	△34.0	1.7	△30.6
6월	25.1	△23.0	12.4	△28.9	6.9	△33.5	1.6	△31.9
2분기	70.2	△23.9	33.7	△33.0	18.5	△35.1	4.7	△34.7
7월	27.0	△15.6	13.3	△23.3	8.1	△25.0	1.6	△31.5
8월	28.8	△7.2	14.7	△12.7	8.7	△20.6	2.0	△2.4
9월	32.1	9.2	16.0	10.5	9.3	9.6	2.1	24.5
3분기	87.9	△4.9	44.0	△9.5	26.1	△13.6	5.7	△5.0
10월	34.3	36.4	17.8	56.0	10.5	69.1	2.4	86.1
11월	35.0	80.1	19.4	114.1	12.4	141.1	2.0	78.0
12월	34.4	125.5	20.0	174.8	13.8	186.4	1.8	132.4
4분기	103.7	72.8	57.2	105.8	36.7	126.5	6.2	93.8
'10년 1월	33.0	120.6	19.6	171.8	13.8	215.1	2.1	110.0
2월	33.5	117.9	19.3	144.6	13.0	195.9	2.1	92.5
3월	40.4	123.0	22.8	163.9	15.1	204.1	2.4	81.9
1분기	106.9	120.4	61.7	159.2	41.9	203.6	6.6	94.1
4월	41.8	97.6	24.6	150.1	16.0	201.3	2.5	77.9
5월	43.9	82.6	26.1	127.5	17.6	179.1	2.4	40.2
6월	43.8	74.2	25.3	103.2	16.7	141.8	2.4	48.6
2분기	129.5	84.5	76.0	125.5	50.3	171.9	7.3	55.3
7월	46.2	70.8	26.4	98.5	17.8	119.6	2.4	53.4
8월	47.4	64.9	27.9	90.4	18.8	116.9	2.5	26.9
9월	48.4	50.7	26.6	65.8	17.5	86.9	2.2	4.3
3분기	142.0	61.5	80.9	83.9	54.1	107.3	7.1	24.6

자료: 지식경제부

- 3분기 수출 실적은 지난 2분기(129.5억 달러)에 비해서도 9.7% 증가하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소폭 줄어드는 추세임.

* D램 월별 수출 추이: ('10.7) 17.8억 달러, 119.6%↑→(8) 18.8억 달러, 116.9%↑→(9) 17.5억 달러, 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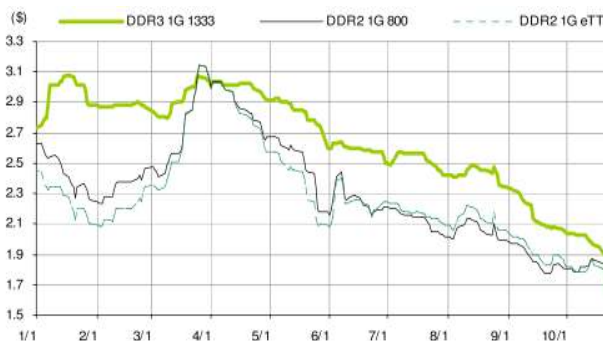
* 낸드플래시 월별 수출 추이: ('10.7) 24억 달러, 53.4%↑→(8) 25억 달러, 26.9%↑→(9) 22억 달러, 4.3%↑

2. 전망 및 주요 이슈: 반도체 가격 4분기까지 하락 지속

□ D램·낸드플래시 가격 큰 폭 하락, 4분기까지 추가하락 가능성 높음

- 3분기 말 현재,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은 1달러 대까지 하락
 - D램 현물가격은 DDR3 1G 1333이 1.79달러, DDR3 1G eTT가 1.55달러까지 하락하였고, 낸드플래시 현물가격도 64G가 9.39달러, 32G 4.95달러, 16G 3.97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3분기에 예상과는 달리 신학기 수요도 높지 않았고, 기업의 PC 교체도 예상보다 부진해 D램이 공급과잉 국면에 놓였기 때문.
 - 시장조사기관인 iSupply는 2010년 3분기 반도체 재고일수(days of inventory :DOI)를 2분기에 비해 1.5일,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한 75.9일로 추정.
- 4분기에도 선진국 PC 수요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3분기 내내 떨어졌던 D램 가격은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업계는 D램의 경우 연말까지 1G 칩 기준 1.3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이럴 경우 PC용 D램 가격은 3분기 평균 단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게 됨.

D램 현물가격 추이



낸드플래시 현물가격 추이



자료: DRAM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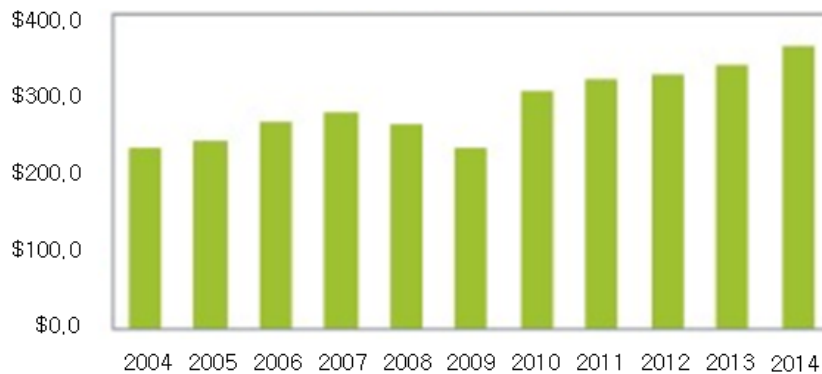
-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4분기 주요 D램 업체들의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
- 향후 DDR3 가격은 2011년 상반기 중에 1.2달러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들의 수익성과 자금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격 하락세는 연말을 고비로 점차 둔화될 전망

□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년대비 5.1% 성장한 3,174억 달러 전망

- 시장조사업체 iSupply는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올해보다 5.1% 성장한 3,174억 달러로 전망
- 201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3,0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 추정
- 2011년의 매출 성장폭은 반도체 시장 위축으로 2010년보다 크게 줄겠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올해에 이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
- 2010년 4분기부터 심화된 시장 위축세는 2011년 1분기까지 이어진 뒤 하반기 이후에나 시장이 성장해, 반도체 시장에서 자주 보였던 '전약후강' 패턴이 2011년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측
-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2014년에는 약 3,57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Supply

III.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1. 실적

□ 3분기 세계 LCD 패널 출하량, 전분기 대비 4% 하락

- DisplaySearch에 의하면 2010년 3분기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총 1억6,300만대로 전분기 대비 4% 하락
 - 전체 매출액도 213억 달러에 그쳐 전분기 대비 7% 하락
- 3분기 패널 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패널 업체들도 생산량을 축소
 - LCD 패널업체들은 6월까지 9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지만, 고객사들의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75% 수준까지 가동률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제품별로는 모니터와 노트북 PC 등 IT용 패널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고, TV와 슬레이트 PC용 LCD 패널은 여전히 증가세
 - 미니노트·슬레이트 PC용 LCD 패널 출하량은 '아이패드'의 9.7인치 수요가 늘면서 전분기 대비 8% 늘어난 560만대 출하
 - TV용 LCD 패널 출하량은 40인치 이상 대형 제품이 지난 2분기 1,600만대에서 3분기에는 1,810만대로 13% 증가
- 업체별로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매출액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26%와 25.9%를 차지해 박빙의 1위 경쟁을 펼침.
 -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51.9%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
 - 패널 출하량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모니터, 노트북 PC, 미니노트 PC, TV 등 모든 제품군에서 1위 차지

□ 3분기 패널 수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92.6억 달러 기록¹⁾

- 3분기 패널 수출은 92.6억 달러로 지난해 3분기의 76.8억 달러보다 20.6% 증가
 - 패널은 중국, EU 수출 확대로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세 지속

1) 부분품 포함 수치

- 패널은 유럽 재정 위기와 TV, PC용 패널의 재고 확대로 단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 유지
- 전년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7월 27.5%, 8월 25.4%, 9월 9.0%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음.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2	3	4	5	6	7	8	9
금액	12.4	15.0	19.4	20.2	21.1	22.4	25.0	25.5	26.3	26.6	24.9	26.3	24.6	23.3	28.4	28.4	29.1	28.8	31.9	32	28.7
증감률	△40.8	△24.1	△12.7	△8.6	△7.1	4.0	5.1	7.8	4.1	10.3	34.9	113.7	99.5	55.8	46.2	40.2	37.6	28.3	27.5	25.4	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금액	46.8			63.7			76.8			77.8			76.3			86.3			92.6		
증감률	△25.6			△4.0			5.6			41.8			63.0			35.5			20.6		

자료: 지식경제부

2. 전망 및 주요 이슈

□ 4분기까지 패널 단가 하락 지속·2011년 1분기 수급 개선 전망

- 지난 4월부터 시작된 IT패널 가격 하락세는 현재 다소 주춤
- 4분기 들어 대만업체들이 가동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어 공급증가는 제한적
- 11월 초반 노트북용 패널과 모니터용 패널 가격은 각각 1달러씩 상승하기도 해 4분기에는 바닥 가격 다지기가 진행될 전망

패널 가격 추이

19인치 모니터용



32인치 TV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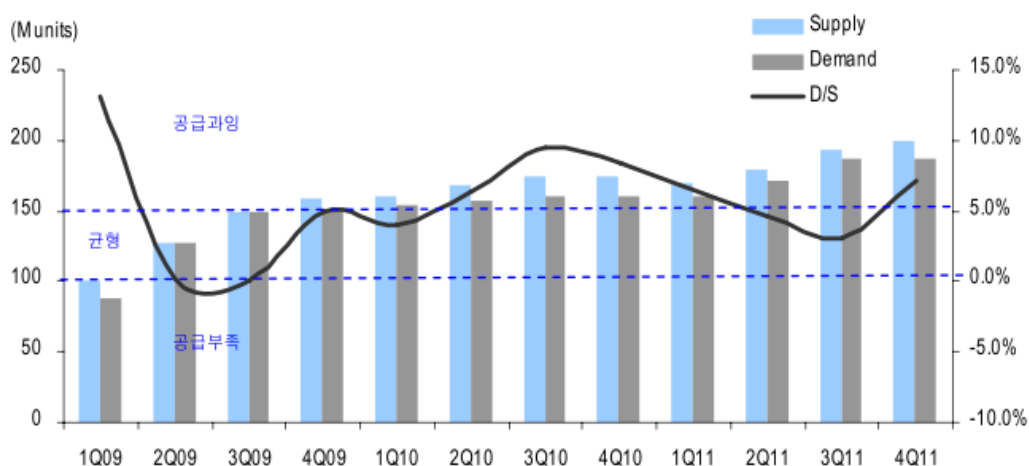
자료: DisplaySearch, 신영증권

- TV패널은 세트업체들의 재고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연말 LCD TV 프로모션을 위한 패널가격 인하 압력이 있는 상태라 연말까지 계속 하락할 전망
- 2011년 1분기에 다시 재고 비축을 위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 수급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연말연시 미국 쇼핑 시즌에 세트업체들의 재고가 상당부분 소진된 뒤, 1월부터는 중국 춘절에 대비한 재고 구축 수요가 발생해 업황 반등이 예상됨.

□ 2011년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LED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 DisplaySearch 전망에 따르면 4분기 LCD 패널 출하량은 총 1억6800만대로 3분기보다 3% 늘어날 전망
 - 그러나 패널 가격 급락 여파로 매출액은 3분기 대비 9%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 2011년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는 LED BLU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
 - 3분기 LED BLU LCD 패널은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4%를 차지해 전분기 37%보다 7%포인트 상승. 출하량 기준으로도 7,700만대를 판매해 분기 성장률 6%를 기록
 - 이에 따라 LED BLU가 모니터용 제품 가운데는 21%, 노트북PC용 LCD패널 중에는 93%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체 보급률이 47.2%에 육박

글로벌 LCD 패널 수급 전망



자료: DisplaySearch, 신한금융투자

IV. 휴대폰 산업 동향

1. 실적

□ 3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전년동기 대비 35% 성장

- Gartner에 의하면 3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4억 1,710만대로 2009년 3분기 3억 889만대에 비해 35% 성장
 -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96% 성장하여 전체 휴대폰 판매량의 19.3%를 차지
 - 노키아,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감소.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RIM은 소니에릭슨과 모토로라를 제치고 Top 5에 진입
 -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노키아의 부진 탓도 있지만 Gartner의 시장 점유율 집계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
 - 이제까지 Gartner는 브랜드 제조사들 중심으로만 출하량을 조사해 왔지만 이번 분기부터 White Box* 단말기 제조사들도 집계에 포함시킨 결과 기존 Top 5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
- *White Box: 제조원이나 판매원의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 소규모이며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제조업체들의 저가 제품으로 유통사에서 이 제품을 구입해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기도 함.

2010년 3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천대, %)

	3Q10		3Q09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량	시장점유율	증감율
1. 노키아	117,461.0	28.2%	113,466.2	36.7%	3.5%
2. 삼성전자	71,671.8	17.2%	60,627.7	19.6%	18.2%
3. LG전자	27,476.7	6.6%	31,901.4	10.3%	-13.9%
4. Apple	13,484.4	3.2%	7,040.4	2.3%	91.5%
5. RIM	11,908.3	2.9%	8,522.7	2.8%	39.7%
6. 소니에릭슨	10,346.5	2.5%	13,409.5	4.3%	-22.8%
7. 모토로라	6,961.4	2.1%	13,912.8	4.5%	-50.0%
8. HTC	6,494.3	1.6%	2,659.5	0.9%	144.2%
9. ZTE	6,003.6	1.4%	4,143.7	1.3%	44.9%
10. Huawei	5,746.1	1.3%	3,339.7	1.1%	72.1%
기타	137,797.6	33%	49,871.1	16.1%	176.3%
총합	417,085.7	100.0%	308,894.7	100.0%	35.0%

자료: Gartner, 2010년 11월

- 중화권 기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짐. 시장점유율 8위를 차지한 대만의 HTC의 경우 지난 해 3분기 270만대에서 올해 3분기에 650만대를 판매하며 두 배 이상 성장
- 9위, 10위를 차지한 중국의 ZTE와 Huawei도 중국 내수시장과 남미시장 등 이머징 마켓에서 점유율을 증가시키며 꾸준히 성장

□ 3분기 휴대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1.3% 감소한 58.3억 달러 기록²⁾

- 3분기 휴대폰 수출은 58.3억 달러로 지난해 3분기의 74.1억 달러보다 21.3% 감소
- 휴대폰 수출은 일반 휴대폰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9개월 연속 감소
-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일반휴대폰의 단가 하락이 심화
- 국내 업체들은 일반 휴대폰의 비중이 높아 휴대폰 수출 단가는 하락하였으나, 최근 스마트폰 수출 확대에 개선 추세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0.1	2	3	4	5	6	7	8	9
금액	21.9	23.6	23.9	24.4	24.9	25.1	26.2	22.8	25.1	25.8	24.6	18.4	21.2	18.7	20.4	17.5	17.5	18.7	18.8	18.6	20.9
증감률	△21.7	1.2	△21.3	△18.4	△11.1	△7.4	△11.4	△18	△22.6	△31.3	2.7	12.8	△3.4	△21	△14.8	△28.2	△29.8	△25.5	△28.3	△18.4	△16.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금액	69.4			74.4			74.1			68.8			60.3			53.7			58.3		
증감률	△15.0			△12.5			△17.5			△11.6			△13.1			△27.8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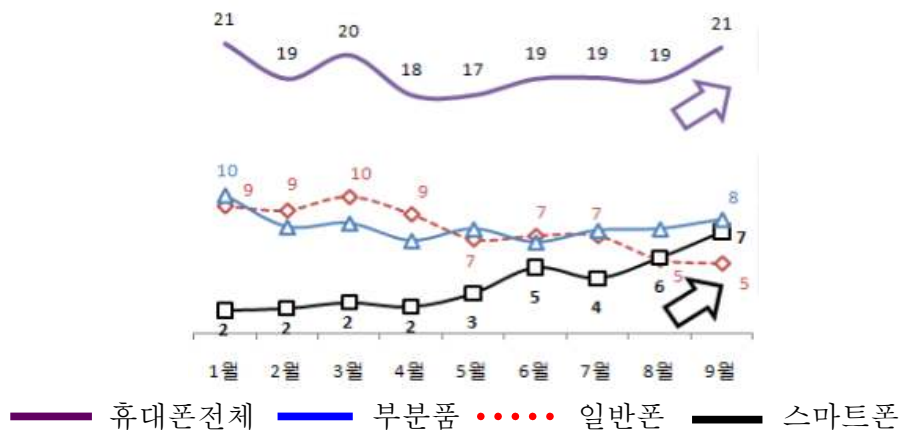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 9월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6% 증가한 7.5억 달러로 휴대폰 수출 회복에 기여
- 부분품을 제외할 때 스마트폰 수출은 8월부터 일반 휴대폰 수출액을 2개월 연속 넘어섰고, 1월 ~ 9월 까지 스마트폰 수출(32.7억 달러)은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수출액(20.6억 달러)의 약 1.6배 기록
- 휴대폰 수출에서 스마트폰 수출 비중은 1월 8.1%에서 9월 35.6%로 확대
- 이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휴대폰 수출 감소율도 줄어들고 있음.
- 전년동월 대비 휴대폰 수출 감소율은 7월 -28.3%, 8월 -18.4%, 9월 -16.8%로 감소폭 축소

2) 부분품 포함 수치

상세 품목별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2. 전망 및 주요 이슈

□ 스마트폰 경쟁력 중심으로 글로벌 휴대폰 시장 재편

- 3분기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약 8,100만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됨. 전체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3%로 상승하며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
- 일반 휴대폰 위주로 생산하는 소니에릭슨과 모토로라가 각각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RIM에게 시장점유율 4, 5위 자리를 내주며 스마트폰 중심 구도를 확인시켜줌.
-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노키아가 37.6%로 1위를 수성. 애플은 첫 20%대 점유율로 RIM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고, 삼성전자도 11.4%를 차지하며 4위를 차지해 HTC를 넘어섬.
 - 애플의 아이폰4와 삼성전자, HTC 등이 제조하는 안드로이드폰의 판매량 증가로 블랙베리를 판매하는 RIM은 주력시장인 북미지역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며 성장세가 꺾임.
-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3분기에 갤럭시S 600만 대, 바다폰 100만 대 등 스마트폰을 785만대 판매하면서 스마트폰의 새 강자로 자리잡고 있음.
 - 3분기 785만대 판매는 전분기 310만대 대비 154.8% 증가한 기록
- 운영체제별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노키아의 심비안이 36.6%로 1위를 차지했으나 전년 동기의 44.6%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크게 줄어듦. 반면

다양한 제조사들이 제품을 내놓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전체 시장의 25.5%를 차지해 1년만에 2위 차지

- 애플의 iOS는 16.7%로 3위 차지했으며, RIM이 14.8%로 4위를 차지해 단일 제조사 OS들의 성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대, %)

	1Q09	2Q09	3Q09	4Q09	1Q10	2Q10	3Q10
1. 노키아	41.1	45.0	39.3	39.6	39.1	37.4	37.6
2. 애플	10.5	13.0	17.1	16.1	15.4	14.2	20.0
3. RIM	20.6	19.0	20.7	19.5	19.4	18.2	17.2
4. 삼성전자	3.4	2.7	3.2	4.1	4.8	4.4	11.4
5. HTC	5.4	6.0	6.5	6.9	6.2	9.6	11.1
기타	19.0	14.3	13.2	13.8	15.1	16.2	2.7

자료: Gartner, 우리투자증권

□ 일반 휴대폰 시장에서 White Box 제조사 비중 확대

- Gartner의 3분기 휴대폰 출하량, 점유율 집계 방식 변화로 Top 5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
 - Gartner는 기존에는 White Box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하량과 점유율을 시장 조사 통계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3분기 자료 집계 후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 있음을 파악, 1, 2 분기 자료까지 소급해 변경 발표
- White Box 단말기 제조사들은 브랜드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추어 저가시장에 납품하는 제조사들로 중국 중소규모 제조사들이 대부분. 소위 '휴대폰 Grey Market'*을 형성하는 업체들로 대부분 미디어텍(중국의 대표적 팹리스 반도체업체)이 공급하는 저가 칩으로 생산
- * **휴대폰 Grey Market:**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짝퉁마켓'. 중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2~3억대 규모로 알려져 있음.
- 조정된 자료에서 기타로 구분된 White Box 단말기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에는 16.1%였으나 올 3분기에는 33%로 비중은 두 배 성장하고 출하량 기준으로는 176.3% 증가.
 - Top 5의 점유율을 83%에서 66.9%로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특히 White Box 단말기 제조사들은 Top 5가 강세를 유지하는 선진국 가들을 제외한 중국, 인도, 러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고성능·저가격을 무기로 점유율 확대
 - Top 5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으로 보이며, 저가 부품 수급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중국)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
- White Box 단말기 비중이 조정되자, 중국, 인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는 기존보다 각각 5%p, 2.7%p, 1.5%p 점유율 하락
 - 특히 중국, 인도, 멕시코, 동남아 지역에서 큰 폭의 점유율 조정이 나타났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2009년 16%까지 집계되었던 중국내 점유율이 1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브랜드 휴대폰 업체들의 경우 일반 휴대폰 시장을 수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일반 휴대폰이 주력으로 판매되는 이머징 마켓에서 저가의 White Box 제품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 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White Box 단말기 제조사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시장에서 3분기 Top 5 업체 비중은 97.3%.
 -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원가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이외에 이동통신사와의 교섭력, 마케팅 파워, 브랜드 파워까지 다양하게 갖춰야 해 브랜드가 없는 업체들이 끼어들 여지가 적기 때문
- 따라서 당분간 스마트폰 시장은 상위업체들이 지배하는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머징 마켓에서는 일반 휴대폰을 중심으로 저가 White Box 제품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